

통일열사 조성만 34주기 오월제

성만이가 꿈꾼 세상

한반도 평화

2022년 5월 28일(토) 오후 2시~5시

전주해성고등학교 강당



사단법인 조성만기념사업회 · 전주해성중·고등학교 총동창회

통일열사 조성만 34주기 오월제

성만이가 꿈꾼 세상
한반도 평화

» **여는마당 (14:00~15:00)**

- '평화사진전' 이시우 사진작가
- 추모식_ 헌화, 추도사, 부모님인사

» **공연 (15:00~15:30)**

- 노래패 '메아리'
- 고양곤 전주해성고 17회·(전)전북민예총 전주지부장

» **초청강연 (15:30~16:10)**

- 불편한 평화 비전 : 조성만을 기억하며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평화학

» **토크_ 한반도 평화, 해법 찾기 (16:10~17:00)**

- 인디 다른 세상을 만나는 40일 봄비람 순례단
- 이시우 사진작가, 평화활동가
- 김현준 전주해성고 총학생회장
- 이윤수 전주해성고 55회
-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 **난상토론**

- 재학생이 묻고 답하기

부활하는 韓半島

북은 이산천이 부른다

마지못해살아가는 노동의 현장

비가 잘 의의도 잠초만 듣고는 한반도의 피근을

노동력으로 살라고

아-

북은 이산천이 부른다

북인사를 골짜기 너를 부르네

내분 내분을 부르네 꽃들처럼 살아가는

아, 부활하는 韓半島

● 조성만 요셉

- 1964년 12월 13일 전북 김제군 용지면 출생
- 1980년 전주해성고등학교 입학, 1983년 졸업
- 재학 중 문정현 신부로부터 영세 받음
- 1983년 재수할 당시 명동성당청년단체연합회 소속 가톨릭민속연구회 가입
- 1984년 서울대학교 자연대 화학과 입학
- 1984년 2학기 휴학, 1985년 2월 군 입대, 한미연합사령부에 근무
- 1987년 5월 군 제대, 가톨릭민속연구회 활동 다시 시작
- 1987년 구로구청 농성 시 연행되어 10일간 구류
- 1987년 명동성당청년단체연합회 가톨릭민속연구회 제7대 회장으로 선출
- 1988년 5월 15일 오후 3시 40분경 명동성당 교육관 3층 옥상에서
양심수 석방, 미군 철수,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등을 외치며
자필 유서를 뿌리고 할복 투신
- 2001년 8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로 인정
- 2008년 2월 26일 서울대학교 명예졸업
- 2021년 6월 10일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 2021년 6월 11일 국민훈장 모란장 전달식(전북도청)



조성만과 평화세우기

이대훈

글의 취지

이 글에서 조성만의 사상을 평화세우기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읽어내고 현 시기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도가 조성만의 삶과 고뇌를 기억하는데 작은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성만의 기록에 바탕을 두고 그리고 하나하나 명료하지 않지만 오래 전 그와의 만남과 대화¹가 남긴 종합적이고 이미지화된 기억을 참고하면서 조성만의 평화관, 정의관, 국제관계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일반적인 평화론으로, 나아가 평화세우기(peacebuilding)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한반도-동북아에서 평화세우기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더 깊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일반적인 평화론을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핵심적으로는 평화세우기 관점을 통해서 조성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통 평화라는 말-개념이 ‘평화롭다’, ‘평화로운 세상’, ‘평화주의자’처럼 주로 가치나 상태 또는 지향을 지칭하는 용법으로 사용되는 데 비해, 평화세우기는 분명하게 과정에 강조점을 두는 말-개념

¹ 필자도 가톨릭민속연구회(가민연)과 가톨릭문화운동협의회(가문협)에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이자 동시에 세우기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질문이 도출되기 때문에 행위자와 방법, 경로, 작용을 생각하게 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론 소개

로마 제국 이래 세계 여러 나라의 군부 또는 군사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격언에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가 있습니다. 또 과거 제국주의 각축기에 전쟁학자들은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교리를 믿었습니다. 우파도 그랬고 좌파도 그랬고 많은 민족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도 그랬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이 이념은 지속됩니다. 한때 한국 국정원은 “평화로운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포스터를 거의 모든 교통수단 내부에 5년 넘게 붙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누구도 이에 대한 비판이나 포스터 떼어버리기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평화론이 오랫동안 군림해 왔습니다, 마치 유일한 진실인 것처럼.

20세기 평화론(평화학)은 이러한 ‘상식화된 이념’에 대한 저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지적 저항은 평화론을 평화의 철학, 전쟁론 비판, 평화운동사, 인권론, 민주주의론, 시민사회론, 국제기구론, 국제협력, 국제법, 국제관계론에서의 패러다임 투쟁, 안보론 비판, 갈등분석, 분쟁조정론 등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대 평화론에서 가장 자주 다루는 주제를 고른다면, (1) 평화의 개념과 의미 (2) 전쟁의 정당화 비판(군축 등) (3) 평화운동 (4) 현대전쟁과 핵전략 비판 (5) 소극적 평화론과 적극적 평화론 (6) 국제관계속의 평화문제 (7) 여성주의와 평화론 (8)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변동 (9) 생태주의 평화론 (10) 분쟁조정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다르게 생각하는 일은 평화의 구성을 새롭게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전통적 ‘힘의 평화론’에 대한 저항이자 대체입니다.

서구에서 종종 평화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노르웨이의 요한 갈통은 평화개념을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구분하였고 폭력의 개념도 직접적 폭력(direct violence)과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로 구분하였습니다. 전쟁이나 폭력

을 중단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서 주로 결과에만 처방을 가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체제유지적인 평화를 소극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 자체를 평화의 핵심 문제로 가져들어온 것은 평화론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전쟁의 부재’와 ‘전쟁발발의 방지’라는 부정적 개념의 ‘소극적 평화’를 중심으로 전쟁과 폭력을 제거하는 방법, 전쟁과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고전적인 국가중심적 국제관계론에 대한 전면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냉전이후 동맹 간의 경쟁체제가 주요 연구대상이 되던 시기가 종료되고 동시에 민족, 지역, 문화, 종교적 갈등이 급격히 심화, 확산되는 현실에 직면하여, 평화론은 여러 층위에서 대립과 갈등의 구조적 역사적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로 초점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즉 평화 유지를 넘어서서 평화세우기로 초점이 옮겨 간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는 70년대 이후 여성주의가 평화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요약하자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상정하는 것을 오래된 체제로 인식하면서, 그 체제를 ‘전쟁과 국가와 남성의 삼위일체’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지배의 힘이 체제를 유지하고 그렇기에 그 체제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준에서의 폭력은 이 인위적 권력 체제를 ‘자연스러운 질서’로 인식하게 만드는 체제와 문화의 작용입니다. 전쟁-국가-남성의 체제는 ‘그렇지 아닌 듯한’ 착각을 필요로 하고 이것이 체제의 폭력을 ‘아닌 것처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 작용은 사회적입니다. 거의 전 사회적으로 전쟁-국가-남성의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영향력이 작용합니다. 즉 거의 누구나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와카쿠와 미도리의 『전쟁과 젠더』(오츠키 쇼텐, 2005)는 젠더 관점에서 전쟁을 전면적으로 다룹니다. 인간은 왜 싸우는가, 전쟁 없는 시대, ‘남자다움’과 전쟁 시스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 여성 차별과 전쟁, 페미니즘과 평화운동, 새로운 평화개념의 창출을 주요 주제로 다룹니다. “모든 평화운동은 가부장제와 군사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젠더의 평등성과 비폭력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한다. ‘인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우리의 사고방식과 운동의 방법을 바꾸어감으로써 군비 증

강에 의한 안전보장 체제와 그것을 조작하는 가부장제를 바꾸어낼 원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듯 현대 평화론에 미친 젠더 연구의 영향은, 젠더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일상적 폭력 및 폭력 구조의 이해, 전쟁의 폭력과 평화시기의 폭력에 대한 연관성, 연속성에 대한 이해, 전통적 평화문제 인식에서 젠더가 배제되는 과정, 여성이 경험하는 일상과 ‘평화’시의 폭력에 대한 이해, 전쟁이 가져오는 젠더차별적인 피해에 대한 이해, 안보체제의 젠더적 성격 이해, 젠더 관점의 평화 및 평화운동이라는 새로운 영역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는 심층적 비판이고 저항인데, 그래서 ‘힘의 정치’를 숭양하거나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학자나 지도자들은 평화의 젠더관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오래된 격언은 국제관계에서의 강력한 주술 즉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표현된 것이며 ‘전쟁-국가-남성의 총체성’은 현실주의에 대항하기 위한 여성주의-평화주의 프로젝트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국제)와 평화를 연결시키는 가장 주류인 패러다임은 현실주의라 할 것입니다. 현실주의는 국가, 안보, 힘의 정치라는 문법으로 평화를 설명하려고 한다. 중세 유럽에서 성직자들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했다면 현대판 성직자들인 안보전문가들은 ‘국가 밖에 안보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현실주의는 유럽의 세계제패와 Pax Christi-Americana를 정당화하는 사유구조를 갖습니다. 여기서 국가안보라는 것은 국가-남성-전쟁이라는 삼위일체에서 일종의 구원의 계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체계적인 평화의 관점에서 어떤 사상을 읽어보고자 한다면, 그 사상 속에서 전쟁에 대한 비판, 평화 실천에 대한 관심, 사람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 민주의 역할, 국제관계론, 안보론 비판, 갈등에 대한 인식, 미래 사회, 지배질서의 젠더 권력 등의 렌즈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세우기의 관점

평화론의 확장은, 평화의 문제를 매우 구체적이면서 상호연관된 문제로 인식하는 체계적이면서 과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커다란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인식의 운동이자 사상의 운동이자 동시에 실천의 운동입니다. 또, 평화를 개개인의 가치나 마음의 문제인 것처럼 축소시켜서 ‘평화’가 현실 세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믿도록 만들어온 오래된 체제에 대한 깊은 저항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평화세우기는 위에서 언급한 평화학자 요한 갈통이 처음 제안했고 이를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 6대 유엔 사무총장이 1992년 [평화의 의제]라는 특별한 보고서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점차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평화세우기라는 개념은, 평화라는 지향보다 훨씬 폭넓게, 폭력과 갈등을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 중단시키고 그 이후 재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회시스템을 설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이와 관련된 모든 행동을 연속적이고 과정적인 것으로 구상하는 행위를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화세우기는 과정의 중반기부터 사회/체제 변혁적 성격을 갖는 실천이 됩니다.

1992년 [평화의 의제]라는 보고서에서, 부트로스갈리 사무총장은 평화세우기를 우선, “갈등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평화를 강화하고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구조들을 확인하여 지원하는 행동”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보고서에 대한 후속 논의와 후속 보고서를 통해서 평화세우기는 이렇게 개념화되었습니다.

갈등의 개시 또는 갈등으로의 회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일련의 조치들로서, 해당 국가의 모든 수준에서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형성이 중심이다. 평화세우기 전략은, 해당 국가가 정책 주도성을 갖도록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해당 국가의 구체적인 니즈에 맞춰져야 한다. 또한 평화세우기 전략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중하게 설정된 우선순위와 실행 순서에 따라 집중된 조치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_ 2007년, 유엔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보고서

평화세우기라는 생각이 제기된 것은 종합적 사회변화가 가장 평화적인 실천이라는 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평화세우기를 통해 추구하는 종합적 사회변화를 다음과 같은 4가지 영역에서의 사회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갈등의 근본 원인과 추동 요인에 대응한다. (예, 사회 구성 집단간의 불평등)
2. 갈등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구축과 개인 및 집단의 역량 강화
(예, 정치, 안보, 사법, 사회복지 행정 분야 등)
3.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하고 사회 집단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 (예, 화해 과정)
4. 정부에 대한 신뢰(국가-사회 관계)와 정당성을 세운다. (예, 사회적 대화)

평화세우기의 관점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처럼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또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다고 평화가 자동적으로 도래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거의 핵심 신조처럼 강조합니다. 평화세우기는 근본적으로 체제변혁적 과정이기 때문에, 화해와 신뢰구축 및 치유의 단계를 거치면서도 생태를 포함한 체제의 지속가능성, 사회 정의, 인권 보장, 시민사회 강화, 평화지향적 언론, 사회적 약자들의 권력형성(empowerment)을 분명한 과정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과정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명료하게 되면 각 과정을 수행할 행위자가 그 만큼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와 마음의 문제로서의 평화는 ‘착한 사람’에 강조를 두지만, 평화세우기로서의 평화는 다양한 많은 행위자와 각 행위자의 역량형성에 강조를 두게 됩니다.

평화세우기를 지향하는 평화실천가들과 국제평화기구 등에서는 평화세우기의 핵심역량을 대략 다음 다섯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² 지속적 평화와 발전의 기반 만들기, 다면적 갈등관리 역량, 해당 나라와 사람들의 주도, 일관성 있는 전략(대화, 민간 평화기구, 문제해결 워크숍, 차별예방, 갈등후유증 대응), 이를 통한 항구적인 갈등 재발 방지: 시스템의 변화. 또 이 과정에서 특히 청년과 여성들이 평화와 안보 모든 영역과 결정 과정에 참여, 그 과정에서 주도성-지도력-책임성의 수행, 관련된 지식-태도-역량 습득, 다

² 예로서, 독일 베르그호프재단(Berghof Foundation), 유엔평화세우기기금 <http://www.unpbf.org/application-guidelines/what-is-peacebuilding/>, 한국 (사)피스모모

양성과 소수자 존중, 폭력 민감성, 대화-협력-파트너십을 수행하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세우기의 어떤 사상을 읽어보고자 한다면, 그 사상 속에서 체제변혁적 과정으로서의 평화, 지속적 평화와 발전에 대한 생각, 갈등관리와 그 역량에 대한 생각, 당사자들의 주도성, 일관성 있는 전략, 청년과 여성 및 소수자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 대화의 역량 등이 의미있는 렌즈가 될 것입니다.

조성만과 평화세우기

제한된 기록이기는 하지만, 조성만의 삶의 궤적은 무엇보다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제와 양립 불가능합니다. 두 세계는 대척점에서 있습니다. 조성만은 평화를 원하는 의지로 고뇌의 결단과 메시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을 지속되는 제국 체제에 대입하면 우리는 이러한 조성만의 삶과 생각의 어느 한 조각도 팍스로마나-팍스브리타니카-팍스아메리카나의 팍스(Pax)의 부속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팍스 로마나의 팍스를 평화로 번역하는데 반대합니다. 이 팍스는 로마제국적 평화이고 그 후예인 크리스찬 제국주의의 세계지배이고, 현대의 미국 패권체제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평화론은 정확하게 팍스로마나의 평화인데, 그러므로 이 때 팍스(Pax)는 평화(Peace)가 아니라 제국적 질서 협약(Pact)으로 번역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제국의 팍스로마나와 가톨릭교회의 팍스로마나가 다르다고 강조할 수도 있지만, 팍스아메리카나에도 바로 두 얼굴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둘은 같은 팍스의 전통에서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성만은 로마 제국과 그 후예들의 세계인 팍스의 종말을 상징하며 그 예언이기도 하고, 다른 세계의 가능성 모델이기도 합니다. 평화의 올림픽을 통해서 체제 경쟁과 내부 억압을 강화하는 권력 정치, 한미 관계의 권력 정치, 80년대에 핵심 고뇌였던 광주학살과 항쟁의 억압을 관통하는 패권국가의 문제, 저는 이것이 조

성만과 우리에게 주어진 팩스였으며, 조성만은 이 국제질서에 완전히 다른 방식과 문화로 도전을 가했습니다. 국제관계에 논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자면, 조성만은 현실주의 세계관(힘을 통한 질서관)에 대척점에서 있습니다, 여전히.

그를 아는 사람들은, 지인들에게 진지한 대화와 잔잔한 생각을 나누는 친구, 작은 일도 눈여겨보고 섬세하게 배려하고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특히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을 좋아했고 또 타인에 대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관해서는 평소에 유서와 기록에서 한반도를 “척박한 땅”³으로 인식했고 “한반도의 통일은 그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막아져서는 안”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유산으로서 “조국의 분단”이 거의 항상 고뇌와 성찰의 중심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 조건들이 “삶을 뿌리 뽑힌 채 갈수록 비인간화되는” 민중의 상태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필자는 여기서 대화와 아픔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합쳐서 아픔이 있는 대화, 아픔을 품는 대화, 아픔에 대응하는 대화라고 부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평화론에서도 그렇고, 특히 평화세우기에서 강조하는 평화 역량에서는 이러한 대화 역량을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픔을 품는 대화는 다른 대화와 다릅니다. 깊이 들어가는 아픔의 대화에는 시대와 세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만의 삶에서 저는 대화 역량을 우선 기억하고자 합니다. 자신과 관계를 변화시키고 세계의 아픔이 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대화 역량,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분단을 넘어서 가야 하는 한반도-동북아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조성만은 우선 척박한 현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뇌했습니다. 척박함을 숙명적인 것이나 힘의 권력관계로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의 척박함을 민중의 삶에서 보이는 기본권의 박탈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척박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전쟁과 전쟁하는 국제체제에 대한 비판에 기초해 있고, 전쟁과 지배를 숙명적으로 보는 것을 거부하고 구체적 행위자의 구체적 행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체제에 대한 평화론은 이렇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가치와 마음 또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체제와 국가의 문제,

³ 인용문 표기 조성만의 말은 모두 조성만 유서에서 가져옴.

기본권을 박탈당하는 삶의 문제, 미래를 박탈하는 문제로 인식하여, 지금 여기의 문제를 여기에 초점을 두면서 보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 딛고 있는 땅에서 서서 세계를 이해하고 그 폭력적 작용이 여기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체계적인 평화론, 체제를 변화시키는 평화세우기에 시사하는 점은 매우 큼니다.

국제적 역사적 조건 또는 원인으로 미국에 대한 조성만의 인식은 매우 명료해 보입니다. 그는 미국을 “인류를 자기 나라의 이익을 뽑아내는 장소로 여긴” 국가, 한반도에서 축출되어야 할 국가,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과 5.16 지원 및 1980년 광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해방 후 남한 상황을 미국의 “대리통치세력인... 친미사대주의자인 이승만, 독립군을 때려잡던 일본육군사관학교의 후예들, 이들의 반민족적 행동”의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조성만 당시의 군사정부도 이러한 역사의 지속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대리통치세력’인 군사정부는 사람들을 갈라놓고 민중의 삶을 핍박하게 만들고, 국가폭력을 은폐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노래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에게 적대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분단에 대한 지금-여기의 인식이자 또 국제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정부이라는 국가행위자를 국제체제의 일원으로 위치시킵니다. 깊게 들어가면 이는 미국 패권체제에서 평범한 하나의 국가가 가질 수 있는 위상의 문제, 평등한 국가주권의 원리의 진실성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제관계론에서 매우 쟁점이 되는 주제입니다. 심지어 패권 국가 외에 주권을 가져본 국가가 있는가 라는 질문도 제기됩니다. 조성만의 생각은 이미 국제체제에 대한 이러한 깊은 질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성만은 주권국가답지 않은 국가행위자들의 속성을 식민지 역사에서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이어지는 식민성의 핵심을 상호 적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를 역으로 추적하면, 사람들 사이의 불필요한 상호적대라는 폭력을 인위적인, 권력적인 작용으로 이해했고, 이 권력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체제 효과를 식민지, 식민화된 세력, 국제 패권국가의 이익, 분단 체제의 효과로 인식합니다.

그 결과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동시대 사람들 또는 행위자들에

대한 조성만의 인식은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패권적 미국, 한반도에서 식민지적 대리통치인들, 그리고 “서로 철전지 원수가 되어... 같은 형제라는 낱말을 잇고” 사는 분단된 민족, 다시 동질성을 회복해야 할 민족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조성만은 국제적 시스템을 변화시킬 주요 행위자로서 통일된 민족, 하나된 민족을 중심에 두고 말하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자체에 큰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만의 변화 행위자는 민족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도 예상해야 합니다. 조성만에게는 역사적 세대론이 있었습니다. 아픔과 억압에 관한 깊은 성찰은 행위자론을 단순하게 만들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조성만의 기성세대에 대한 처절한 반항의 선언은 결코 세대적 선언이 아닙니다. 저는 평화세우기 프레임에서 청년, 여성, 소수자들이 결정권을 가진 주체로 나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평화세우기의 핵심을 간파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패권 체제는 하위 국가를 분열시키고 식민성을 지속시키고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상호적대 상호 폭력적으로 만듭니다. 이 적대적 이분법 체제(분단체제)에서 주권을 가장 전면적으로 박탈당하는 사람들이 청년, 여성, 소수자들입니다. 기본권 박탈의 문제를 넘어서서, 평화의 영역에서 가장 심각하게 주권을 박탈당하고 가장 비가시화되는 사람들의 존재가 바로 분단체제와 같은 폭력적 체제의 속성입니다. 조성만은 그 나름대로의 국제와 여기, 요즘 개념을 글로벌한(global) 체제인식을 하고 그에 바탕을 두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반란을 선언합니다. 저는 이 점 역시 주권 선언으로 읽고 싶습니다. 로컬하게는 분단과 적대, 글로벌하게는 패권체제, 이 체제는 청년, 여성, 소수자를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특히 평화-안보-외교 등 분야에서 이들의 부재는 현저합니다. 민주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없어진 행위자, 억압된 행위자를 찾는 것은 평화세우기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그 역할까지 부여할 때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패권의 폭력을 지적하면서 기성세대에 대한 반란을 청년들에게 촉구한 조성만은 새로운 행위자와 그 역할에 관해서 하나의 매우 명쾌한 평화세우기 관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속에서 자신의 삶과 역할에 대해 고뇌할 때 조성만은 오랫동안, 항상 예수의 삶과 고난을 떠올리며 명상했습니다. 그는 예수의 터전

에 대해서도 “적박한 팔레스티나”로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적박한 식민지에 살았던 “목수의 아들”로 예수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되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점일 수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형이 밋고 용서할 수가 없다’고 까지 한탄하게 하는 어떤 귀결 - 그러한 명상과 숙고를 통해서 “자책만을 계속하게 할 수는 없”다는 자각, “기성세대에 대한 처절한 반항”의 의지와 “자랑스러운 조국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조성만의 분단 고뇌와 탈분단⁴

조성만이 인식한 그대로 한반도의 분단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도 전쟁과 독재 및 탄압을 수반하는 거대한 폭력구조였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평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한반도-동북아의 분단체제를 폭력의 구조로 보고 이로부터의 전면적 해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일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해방의 과정을 탈분단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조성만의 삶과 실천을 탈분단의 여정에 위치시키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에서 토착화된 현실과 더 깊이 연관되고 더 변화지향적인 평화세우기라면, 우리를 둘러싼 체제가 어떠한 갈등과 폭력을 어떻게 발생시키는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패권경쟁과 국내 패권경쟁 그리고 냉전이 만들어낸 분단과 한국전쟁은 한국과 북한이 태동하고 공고화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쳐 왔습니다.

분단체제를 국가 간의 체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조성만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즉 체제가 만들어내는 일상을 통해 관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분단체제는 우선적으로 적대적인 이분법 체제이고, 군사와 안보를 국정의 절대적인 1번 의제로 만드는 영향력입니다. 분단체제에서는 이질적인 타자에 대해서 협력과 대화보다는 협박과 단절을 우선시되며, 환대와 우정보다는 적대와 혐오가 더 정당해집니다. 이질적 타자는 손님 보다는 적으로 쉽게 표적화되며, 이에 대비해야 하는 시민들은 적을 재빨

⁴ 이 정은 2018년 피스모모 평화대학 불학기, 저의 강의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리 찾아내야 하는 색출 능력을 훈련받습니다. 평화의 가치를 존중하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기와 군사주의의 패권 앞에서 쉽게 취약해지며, 민주주의를 지향할 때에도 공포 조성이나 안보 장사하는 사람들, 군복 입은 건장한 남성 신체가 더 쉽게 유리해집니다. 국가수립 초기부터 이러한 분열에 깊이 관련된 강대국에게 한국인은 시민으로서 합리적인 태도를 갖기가 매우 어렵고, 이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쉽게 색출의 대상이 됩니다. 이분법적 세계와 적대, 공포의 선동과 영원한 색출 집착증은 체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분법적 분열 현상을 폭넓게 관찰하면, 국가와 땅과 사람이 남북으로 쪼개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논지가 쉽게 흑백으로 나뉘거나 찬반으로 나뉘며, 나아가 거의 모든 생활세계가 그렇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주의와 평화를 어느 정도 관찮게 누려온 한국의 생활세계는 깊은 수준에서 우리-그들, 선진-후진, 선배-후배, 위-아래, 고위-하위, 존대-하대, 우월-열등, 남성-여성, 빈-부, 갑-을, 강-약, 서울-지방, 성공-실패, 서구백인문명-기타문명,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체제는 마치 적아에 대한 빠른 식별과 비정상을 즉각적으로 색출해 내는데 최적화된 체제 같습니다. 역으로 이 체제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이러한 이분법과 색출 감각을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그 촘촘한 체제에서 틈새를 찾아 함께 살 친구나 이웃을 찾는 일은 원천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나아가 전쟁을 통해 형성된 안보중심 국가에서는 그 동안 이러한 이분법이 ‘안보 아니면 종말’이라는 종말론적 이분법으로도 증폭되어 왔습니다. 이럴 때 국가는 쉽게 최선의 보호자로서, 국가 지도자는 최고 보호자로서 인식됩니다. 그 외는 모두 수동적 피보호자가 됩니다. 이러한 이분법은 국가의 보호자 성격과 시민의 피보호자 성격을 강조합니다. 국가보안법이나 국가안보기구, 국방 성역화 등을 통해서 피보호자인 시민은 보호자에게 이견을 제기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고 문화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국기 또는 국가를 상징한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맹목적 충성이 보장되며, 이를 위배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징계가 가능해집니다. 2018년 인 지금도 국가 행사에서 강요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충성 서약’을 거부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이러한 보호자국가(안보국가)의 지도자=보호자, 구성원=피보호자의 구

도는 일상에서 가부장제, 선후배 구도, 젠더관계, 조직의 지도력, 교육,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와 쉽게 연결되면서, 무수히 많은 체제 효과를 낳습니다. 두 가지만 예로 든다면, “간첩잡는 꼴이장군”과 “오빠가 지켜 줄게”라는 담론이 분단체제의 맨 얼굴이기도 합니다. 보호자-피보호자 이분법의 젠더화된 일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김정수, 서보혁, 김병로 등이 분단폭력을 심도 깊게 연구하여 낸 책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⁵이 보여준 성찰도 이러한 모습을 잘 포착합니다. ‘분단폭력’ 개념은 분단이라는 체제와 폭력의 구조성, 일상성을 매우 잘 연결시키는 개념이며, 이로부터 탈분단 구상을 가능하고 당연한 것으로 구성해줍니다. 이 책에서 서보혁은 분단폭력을 “분단이 만들어내는 폭력적 활동과 구조, 담론”이라고 정의하고, 분단폭력의 모습을 식민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의 결합으로 설명하는 탁월한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억압으로부터의 탈피, 일상에서의 탈피와 구조의 변화가 탈분단을 구성하게 된다고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단폭력은 “공산주의라는 특정 이념에 대한 태도를 절대적 판단기준으로, 전시체제를 합리화의 명분으로, 이적성을 규정하는 법질서에 종속되어 만들어진 상황과 사건들”로 이해합니다. 즉 분단은 전쟁, 분단, 이적성, 국가 일체성, 다양성 통제 등에 의해 야기된 사건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 즉 이러한 사건의 이야기와 해석을 재구성하는 실천을 하게 되면 탈분단을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체제의 속살을 군사주의적 속성, 집단 중심성, 집단 경계, 폭력 사용, 위계성, 도전의식, 획일성, 영웅적 리더십로 읽어내면 더욱 탈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⁶ 일찍이 조희연이 제기한 “병영국가론”⁷은 박정희 체제에, 권인숙의 “대한민국이라는 군사화된 국가와 사회”⁸는 80년대에 국한되기는 했지만,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보입니다.

안보국가, 분단폭력, 병영국가론은, 우리가 폭력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⁵ 김병로, 서보혁 편, 『분단폭력: 한반도 군사화에 관한 평화학적 성찰』, 아카넷, 2016.

⁶ 서보혁, “군사주의 이론의 초대”, 위 자료.

⁷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역사비평사, 2007.

⁸ 권인숙, 『대한민국은 군대다: 여성학적 시각에서 본 평화, 군사주의, 남성성』, 청년사, 2005.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 수면 밑의 빙산은 거대합니다. 이는 분단 체제이고 미 패권체제이며 그리고 교육과 일상으로 깊게 침투한 체제의 문화적 표현입니다. 이 빙산은 너무나 많은 잘못과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분단에 대한 문제의식은 분단체제의 폭력에 대한 총체적 관찰과 성찰로 이어지면 더욱 예리해 질 것이기 때문에, 조성만이 고민했던 것과 매우 비슷하게 이를 “분단이 만들어내는 폭력적 활동과 구조, 담론”이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단 폭력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나 특정한 가해자에 국한된 폭력성의 산물이 아니라 식민주의, 군사주의, 권위주의가 결합된 구조이자 현상, 그 속에 포섭된 일상과 우리로 이해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체제로부터의 작으면서도 큰, 촌촌한 해방이 탈분단의 상태일 것입니다.

조성만에게 분단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기억해 보자 제안드립니다. 조성만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진지한 대화와 잔잔한 생각을 나누는 친구, 섬세하게 배려하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은 탈분단되어야 하는 미래의 사람 얼굴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미래 비전을 구성하는 장면들입니다. 거기에는 우선 친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하고 아파하고 상담하고 조언하고 그래서 또 생각을 변화시키고 숙성시킵니다. 분단체제의 군사적이고 서열적이고 명령하는 인간관계의 대척점에서 있습니다. 그는 한반도 사람들이 적대하도록 역사적으로 권력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체제가 적대를 생산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성만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단체가 만들어낸 군사적 질서, 병영적 질서, 상명하복의 질서, 색출 집착증은 이렇게 쉽게, 친구의 발견을 통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통일된 한반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상할 시간과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청산되지 못한 역사의 유산으로서 “조국의 분단”이 청산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과정이 사람들에게 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실을 숙명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를 거부했던 점은, 현실을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며 자신의 결단을 그 과정의 하나로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만은 그 행동이 폭력적인 국제관계에 대한 것과 그와 관련된 것이고 거

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국제적인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지금 딛고 있는 분단체제를 분명하게 하나의 거대한 세계를 이해했고 그 폭력적 작용이 여기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 이해하는 동시에 과열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성만의 생각과 행동을 30년 전에 그가 시작한 탈분단의 여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30년 후의 우리는 이를 더 넓고 긴 탈분단의 여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사점

지속적 평화를 위해서는 다면적 다단계적으로 갈등관리, 민 주도성, 민 주권, 일관성, 역량, 기구, 훈련, 대화, 시스템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청년과 여성들이 평화와 안보 모든 영역과 결정 과정에 참여, 그 과정에서 주도성-지도력-책임성의 수행, 관련된 지식-태도-역량 습득, 다양성과 소수자 존중, 폭력 민감성, 대화-협력-파트너십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조성만은 분단체제를 분명하게 거대한 글로벌 체제로 이해했고 그 폭력에 대해서 아파했고 동시에 글로벌한 과열을 낼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조성만의 생각과 행동을 30년 전에 그가 시작한 탈분단의 여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물론 30년 후의 우리는 이를 더 넓고 긴 탈분단의 여정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평화 사상, 평화의 가치 그리고 평화 실천은 많은 과제와 기회를 얻고 있지만, 또 많은 도전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무엇보다도 가부장제 및 권위주의와 결합된 군사안보 신화/문화가 강력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화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새로이 심화하고자 한다면, 이를 염두에 두고 의제와 과제 설정을 예리하게 종합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조성만을 다시 기억하고 특정한 관점으로 다시 이해하려고 시도하면서, 이

러한 시사점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국제체제(국가 간 체제)를 깊은 평화의 관점에서 그 폭력성을 알아차리고 분석하여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팩스로마나의 긴 전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기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해방의 기획을 한반도에서 탈분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탈분단의 지향, 탈분단의 과정, 일상에서의 탈분단, 체제변혁의 힘으로서 대화, 평화안보 분야의 시민주권, 탈분단된 미래상 등에 대해 더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폭력적 패권적 국제체제의 깊숙이 편입된 한국과 같은 국가에 대해서 국가의 행위(예를 들면, 이스라엘 폭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침묵)를 평화세우기 프레임에서 해석하고 교정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화세우기의 과정을 국가나 보호자에게 의존해서 기대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 영역을 시민 그 중에서도 주권을 갖지 못한 시민인 청년, 여성, 소수자들이 평화세우기의 주권자(참여, 결정, 실천, 숙의)가 되는 일에 특별한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 안보, 군사, 외교 영역에서 새로운 시민행위자들이 주체가 되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국가가 폭력적 국제체제에서 조금이라도 더 주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제가 조성만의 주제였던 분단체제를 생각하면서 탈분단을 향해 강조하고 싶은 평화의 과제를 추가로 적습니다.

첫째, 평화적 수단에 의해 평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실천, 즉 평화운동이 지금 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지역적으로도 더 확산되어야 하며 또 정책적 전문성도 깊어져야 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데는 개인과 문화와 정책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평화운동을 안고 있는 시민사회야말로 폭력적 구조가 변화하는 출발이자 바탕입니다.

둘째,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바꾸는 일이 시급합니다. 구조적으로 정착된 폭력의 문화와 규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사주의 문화를 변혁시켜야 합니다. 물리적 힘과 무한경쟁을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획일적 일체감을 강요하면서 집단과 경쟁에서 배제된 자를 따돌림과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형성된 폭력적이고 군사주의적 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하여 평화와 관용의 문화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셋째, 평화의 가치와 문화가 형성되는 데에는 평화교육/역량연수가 필수입니다. 평화와 갈등조정 역량을 갖춘 지도력의 개발과 역동적인 관계적인 사회문화 형성을 위해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넷째, 평택 미군기지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성주 THAAD 도입과 같이 주민의 의사와 이해에 반해 일방적으로 집행되는 군사안보정책에 대해 시민-주민들이 주권자로서 발언하고 결정하고 자신의 평화적 생존권 보장받기 위한 사회적 여론화와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남북한 간에 전면적 군축을 도모하는 평화운동이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남북한 상호군축은 양극화와 분열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내부에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쟁 위협과 국방비를 줄여 복지와 민생을 확대하려고 하는 평화와 복지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또 군축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정부의 군사안보 정책을 심층적으로 감시하고, 알권리와 참여할 권리 및 제도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비대한 군의 개혁 역시 매우 주요한 과제입니다.

여섯째,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과 적극적인 지역 군축운동이 요구됩니다. 한미동맹의 핵무기체제 역시 불법적이고 고도로 공격적입니다. 일본의 잠재적 핵전력도 큰 문제입니다. 세계 최고의 화약고 동북아에서 핵 및 재래식 무기 군축을 요구하는 국제적 평화운동이 필요합니다.

일곱째,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함하는 동북아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비전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탈분단을 지향하는 비전과 실천 및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현 시기 다양한 실험적 실천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민족주의를 억제하고 지역 평화체제 또는 평화지대의 수립을 요구하고, 주변국 간의 상호 교차승인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연대운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덟째, 평화운동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평화외교의 비전과 원칙, 방법을 정부에 앞서 기초하고 협력적 안보, 민간 중심의 대안적 안보, 갈등예방적 외교, 평화협력 대외원조 등의 새로운 외교이념을 개척해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넓은 냉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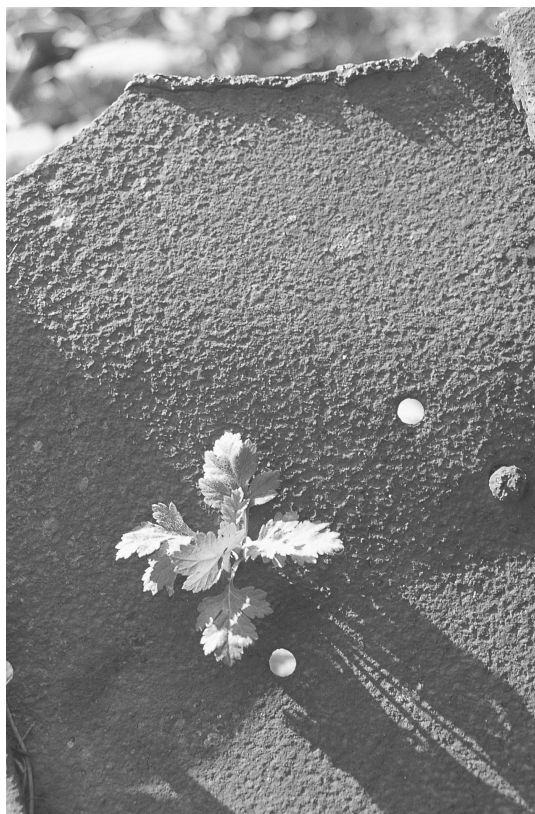
인, 현실주의적인 군사안보 패러다임을 새로운 평화적 안보패러다임으로 변혁시키는 지적 작업을 선구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째, 평화사상, 평화학, 대안적 안보에 대한 연구와 전문적 논의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환경평화운동과 여성평화운동의 경험을 반추해서, 토착적 평화사상에 현대 평화학과 생태주의 및 여성주의를 교차하는 전문적 연구와 논의가 향후 체계적인 평화의 비전을 세우는데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대훈 | 한반도평화친선대사(통일부 위촉),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연구교수, (사)피스모모 이사/평화교육연구소 소장, (사)저스피스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저서로 『세계의 화두』(개마고원, 1999), 『빈곤의 세계화』(역, 미셸 초스도프스키 저, 당대출판사, 1998), 『루가노 리포트』(역, 수전 조지 저, 당대출판사, 2006), 『인권과 평화 함께 읽기』(공저, 이대훈 외,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7), 『사회를 보는 새로운 눈』(공저, 학술단체협의회 편, 한울출판사, 2008) 외 다수가 있다.

● 평화사진전_ 이시우 사진작가

비무장지대란 말의 의미는 ‘무장하지 않은’이란 뜻이다. 그러나 비무장지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중무장지대를 생각한다. 비무장이란 말을 듣고 ‘중무장’을 떠올리면서도 자신의 분열증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상태, 냉전과 분단의 잔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전쟁은 총을 무기로 민중을 통제하지만 분단은 관성을 무기로 통제한다. 자유의 반대는 구속이 아니라 관성이다. 구속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항하지만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찰해야 한다.



철원 월정리역

이시우 | 사진작가. 사진은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사색의 도구로 비무장지대와 대인지뢰, 주한미군, 한강하구 등의 작업을 해왔으며,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이후 ‘주체사상’ ‘제주4·3항쟁’과 ‘유엔사령부’ 작업에 매달렸다.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서울: 예술의 전당, 1999), [대인지뢰](서울: 중구문화원, 1999), [한강하구](서울: 공간415, 2010), [주체사상](서울: 아트 스페이스 풀/평화박물관 스페이스 99, 2012) 등 사진전을 열었으며, 저서로 『비무장지대에서의 사색』(일산: 인간사랑, 1999), 『끝나지 않은 전쟁 대인지뢰』(서울: 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의 사진집과 『민통선 평화기행』(파주: 창작과비평사, 2003), 『유엔군사령부』(파주: 들녘, 2013), 『제주 오키나와 평화기행』(서울: 말, 2014) 외 다수가 있다.



독일베벤하우젠
미군 포병대대



모스크바 엔겔스상



뮌헨 파싱 에셀론



베트남 디엔비엔푸



오кина와 요미탄손
통신시설



정동진



제주 도두봉 동백꽃눈물



철망 눈꽃



한강하구 용치

● 활동 보고

2021년

- 03.27. 전주에서 기념사업회 설립할 것을 제안
 - 문정현 신부, 문규현 신부, 오두희, 이태숙, 김현순, 임성현 등 (군산 평화바람)
- 03.30. 문규현 신부와 의논 (서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실)
- 04.20. 부모님과 의논
- 04.22.~ 전북지역 친구들 찾기
- 04.26.~27. 천주교 선배들과 의논. 문정현 신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전 대표 박순희·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 노동사목 선배 등 (제주 프란치스코센터)
- 05.0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김선실 대표와 의논
- 05.15. 조성만 추모연미사 (전주 호성동성당)
- 05.29. 꽃심순례포럼 (전주 세계평화의전당 3층)
 - 주제_ ‘조성만과 문규현’, 강사_ 문규현 신부
 - 조성만기념사업회 설립 제안, 결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설립준비위원_ 김선광, 김현순, 문규현 신부, 박동진, 방용성, 안재원, 조종규, 최종수 신부
- 06.05. 부모님과 의논 :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문정현 신부가 중심을 잡아 주실 것을 당부함
- 06.10.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 06.11.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모란장 전달식 참석 (전북도청) 준비위원회 1차 회의 (전주 세계평화의전당)
 - 명칭, 추진방법 등 확정, 단체등록, 단체명의 통장개설 추진 확정, 조직 위상 등 논의 지속하기로 함. 설립준비위원으로 이은경, 임성현 추대
- 06.17. 사업회 단체등록
- 07.01. 발기인 참여제안서 작성, 배포
- 07.16. 준비위원회 2차 회의 (전주 세계평화의전당 1층)
 - 정관초안 검토, 사업방향과 조직위상에 대한 논의 등
- 08.07.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김선실 대표 만남

- 08.19.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의장, 사무처장과 협의(추모연대 사무실)
- 08.27. 준비위원회 3차 회의 (전주 세계평화의전당 1층)
 - 정관초안 검토, 법인등록 관련 논의, 창립총회 일정 확정 등
- 09.24. 전주시청 방문, 비영리사단법인 등록 관련 협의
- 10.01. 준비위원회 4차 회의 (전주객사2길 모임방)
 - 창립총회 행사 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논의
- 10.22. 준비위원회 5차 회의 (전주객사2길 모임방)
 - 창립총회 준비 점검 및 역할 나눔
- 11.20. 조성만기념사업회 창립총회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3층)

2022년

- 01.10. 이한열 열사 배은심 어머니님 장례위원으로 참여
- 04.13. 사업회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승인
- 05. 법인 등기

● 키워드로 바라본 조성만

<언론기사>

- 5.18진상규명 외친 민주열사 40명...예술만장으로 부활
광주인 2022-05-12 16:55 <http://www.gwangj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92>
- 오월 열사들 떠났지만 그들의 '숨'은 계속된다 - 민중화가 홍성민, 광주서 14년 만에 제7회 개인전
광남일보 2022-05-12 11:14 <http://gwangnam.co.kr/article.php?aid=1652321697416539027>
- 힘없는 사람들의 절규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봄바람이 길동무에게 6] 탈핵은 생명을 지키는 일
오마이뉴스 2022-04-01 10:0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2802&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조성만 열사 기념사업회 출범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에 힘 모아”
참소리 2021-11-22 11:11 <http://cham-sori.net/news/46274>
- “조성만 열사 기억하자” 조성만기념사업회 공식출범
전북일보 2021-11-21 17:39 <http://www.jjan.kr/2121350>
- 민주화 외치며 명동성당서 투신한 ‘조성만열사 기념사업회’ 출범
경향신문 2021-11-19 19:05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191905001>
- ‘조성만 열사 기념사업회’ 창립총회...“평화상 추진”
KBS 영상뉴스 2021-11-20 21:39 <https://news.v.daum.net/v/20211120213940079?f=o>
- 1988년 명동성당 옥상서 투신 조성만 열사 기념사업회 창립
전북도민일보 2021-11-16 19:13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140>
- 1988년 명동성당 옥상서 투신 조성만 열사 기념사업회 창립
- 문규현 신부의 제안으로...조 열사 기념비 등 추모사업 추진
연합뉴스 2021-11-16 16:36 <https://www.yna.co.kr/view/AKR20211116120600055?input=1179m>
- “평화·통일·희망·사랑...조성만의 벗님들 동행하세요”
- 33년 만에 ‘조성만기념사업회’ 창립총회, 20일 전주 평화의전당...문규현 이사장
한겨레 2021-11-16 02:32 <https://www.hani.co.kr/arti/society/ngo/1019584.html>
- 6·10항쟁 34돌, 김경숙 열사를 추모함-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우석대 석좌교수
광주일보 2021-06-21 03:50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624215000722530078>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 발전 정부포상
전북일보 2021-06-13 18:04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0315>

- 전북도,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전주일보 2021-06-13 16:50 <http://www.j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103>
- 고(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민주주의 발전 기여공로
새전북신문 2021-06-13 15:39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15773>
- 전북도, 6·10민주항쟁 기념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 발전 정부포상
뉴스메이커 2021-06-13 05:15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8039>
- 고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勳章)’ 추서
- 제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 발전 정부포상
브레이크뉴스 전북판 2021-06-12 10:24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813259
-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플러스코리아 2021-06-12 18:51 https://www.pluskorea.net/sub_read.html?uid=214943
- 민주화 위한 고귀한 희생정신 잊지말아야
전북중앙 2021-06-12 17:04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7984>
- 김제출신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전라일보 2021-06-12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29643>
- 민주화에 기여한 한 청춘을 기리며 - 6·10 민주항쟁 기념 도,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식
전주매일신문 2021-06-11 20:36
<http://www.jjmaeil.com/news/view.asp?idx=133249&msection=1&ssection=89>
- ‘민주주의 발전 헌신’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KBS 2021-06-11 21:50 영상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611215004771?f=o>
-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한국디지털뉴스 2021-06-11 17:37
http://www.koreadigitalnews.com/board/view.php?bbs_id=sub_08&doc_num=6164
- 전북도,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 발전 정부포상
-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서울뉴스통신 2021-06-11 16:54 <http://www.sn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513784>
- 김제 출신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파이낸셜뉴스 2021-06-11 16:03 <https://www.fnnews.com/news/202106111601209110>
- 6·10 민주항쟁 기념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노컷뉴스 2021-06-11 15:52 <https://www.nocutnews.co.kr/news/5569415>
-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미디어투데이 2021-06-11 15:50 <http://www.mediatoday.asia/301900>
- ‘민주화 운동’ 조성만 열사에 국민훈장 추서
연합뉴스 2021-06-11 13:46 <https://www.yna.co.kr/view/PYH20210611094400055?input=1180m>

- 전북도, 김제 출신 조성만 열사에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연합뉴스 2021-06-11 13:45 <https://www.yna.co.kr/view/AKR20210611087100055?input=1179m>
- 전북 김제 출신 조성만 열사에 국민훈장 추서 -11일 전북도청서 부모 통해 전달
한겨레 2021-06-11 13:22
<https://www.hani.co.kr/arti/area/honam/999005.html#csidxd324ab53d7f2e3fa9b0f50d26f03bbe>
-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 발전 정부포상
IPN뉴스 2021-06-11 13:01 <http://www.i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88858>
- ‘명동성당 투신’ 전북출신 고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모란장 추서
프레시안 2021-06-11 11:43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61111430044434?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ODKU
- 김제 용지 출신 고(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 발전 정부포상
뉴스1 2021-06-11 11:26 <https://www.news1.kr/articles/?4336312>
- 독재정권에 맞섰던 ‘고 조성만 열사’에 국민훈장 추서 - 부친 조찬배·모친 김복성 씨 대신 받아
뉴스시 2021-06-11 10:48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1_0001473272&clD=10808&plD=10800
- 민주발전 유공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식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 민주주의 발전 정부포상
위키트리 2021-06-11 10:46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58018>
- 전라북도,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일간전북 2021-06-11 10:44 <http://www.jbkn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2397>
- 송하진 도지사, 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투데이안 2021-06-11 10:47 <https://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344>
- 6·10항쟁 34주년... 고(故)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전주 MBC뉴스 2021-06-11 영상뉴스 <https://www.jmbc.co.kr/news/view/18146>
- 광주항쟁 알린 민주열사들 “국민훈장”
광주 MBC뉴스 2021-06-10 20:20 영상뉴스 <https://kjmbc.co.kr/article/IOXP9YrumFI1>
- 정광훈 의장 등 민주화운동 유공자 25명, 국민훈장 모란장 수여
- 정부,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서 민주화운동 유공자 29인 포상
민중의소리 2021-06-10 15:45 <https://www.vop.co.kr/A00001575446.html>
- [전문]김부겸 국무총리 6·10민주항쟁 기념사...“어떤 어려움에도 ‘민주주의·인권’ 지켜야”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아시아경제 2021-06-10 10:14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1010154215018>
- 계훈제, 김근태, 강경대 등 열사들...6월 항쟁 유공자 포상
한겨레 2021-06-09 17:5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8689.html

- 그 한 사람과 그 한 나라에 당당하라 -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미사에 참석하다
오마이뉴스 2020-05-20 09: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249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5.18 41주년... 광주, 서울에서 순례와 미사
- “5.18 정신 이제 미안마로”
- 미사 봉헌, 가톨릭 민주 열사 묘역 참배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21-05-20 14:07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50>
- 文 “5·18정신 헌법에 담아야...발포명령자 진실 규명”(전문)
머니투데이 2020-05-17 10:5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71003765794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 [전문] 문재인 대통령 “5.18 폄훼,왜곡 단호한 대응 있어야”
아시아투데이 2020-05-17 10:01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17010008346>
- [전문]文대통령 “5·18, 노무현 대통령 제일 먼저 생각한다”
-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 출연해 언급
- “광주 민주화운동 확장시킨 또다른 원동력”
이데일리 2020-05-17 09:29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89046625769904&mediaCodeNo=257&OutLnkChk=Y>
- 문 대통령 “5.18 하면 ‘노무현 변호사’ 제일 먼저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의 5.18’를 주제로 광주MBC와 인터뷰... “용서도 진실 위에서만 가능하다”
오마이뉴스 2020-05-17 09:0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41463&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故조성만열사 추모미사 15일 명동성당서 열려
동아일보 2000-05-16 10:3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0004010>
- “하느님 닮은 열사들, 천국의 삶 누릴 것” - 광주대교구 정평위, 민족민주 열사 위령미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9-12-16 16:19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8>
- 19일 호남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합동추모제 진행
광주드림 2019-10-17 14:15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99806>
- ‘전국의 5·18들’ 국회와 서울시청에서 특별전
광주MBC 2019-06-23 20:20 <https://kjmbc.co.kr/article/lolPclrezdS5iG5>
- ‘전국의 5·18들’ 호명에 숨이 멎었다
경향신문 2019-06-02 21:26 <https://www.khan.co.kr/local/Gwangju/article/201906022126005>

- 김제서 이세종 열사·조성만 열사 추모행사
전라일보 2019-05-19 18:49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143&sc_section_code=S1N10&sc_sub_section_code=S2N45
- 전라고 김제동문회, 이세종-조성만 열사 추모식
새전북신문 2019-05-19 17:27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36614>
- “송고한 뜻 되새겨 의미와 가치 지켜나갈 것”
전북중앙 2019-05-19 13:49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3176>
- ‘5.18민주화운동’ 김제 이세종·조성만 열사 추모식
국제뉴스 2019-05-18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9499>
- 이세종, 조성만 열사 추모식...김제 시민운동장에서 열려
시선뉴스 2019-05-18 19:01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208>
- 5·18 민주항쟁 39주년...이세종·조성만 열사 추모식
연합뉴스 2019-05-18 18:56 <https://www.yna.co.kr/view/AKR20190518046800055?input=1179m>
- 5·18 민주항쟁 39주년..이세종·조성만 열사 추모식
연합뉴스 2019-05-18
① <https://news.v.daum.net/v/20190518184306233?f=o>
② <https://news.v.daum.net/v/20190518184248227?f=o>
- 조성만, 감히 순교자로 부르고 싶은 -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 조성만 31주기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9-05-16 17:05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0>
- ‘오월결상’ 서울 명동성당에 설치
- 정화수 담은 제기 모양 제3호 제막식...전국·세계로 뻗어가는 5·18 정신 기원
광주일보 2019-05-10 00:00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557414000661486006>
- “평화는 구체적 삶, 추상적 평화는 반평화”
- [지금여기 연중 기획 1] 평화 : 이대훈 성공회대 평화학 연구교수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9-02-08 15:34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4>
- 한반도 통일 외쳤던 조성만 열사의 정신 기리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30주기 마무리하며 미사 봉헌
가톨릭신문 201-01-13 [제3128호, 5면]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03160
- “평화의 조건은 공감, 공유, 공생” - 조성만 30주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로 마무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9-01-02 15:18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5>
- “그시절 함께 춤추고 노래했던 ‘따따라답게’ 성만이를 보내려구요”
- 15일 ‘조성만 열사 30주기’ 작은 음악회
한겨레 2018-12-12 20:38 <https://www.hani.co.kr/arti/culture/music/874210.html>

- 시민 참여로 풍성한 전주 기록물
투데이안 2018-12-04 10:55 <http://www.today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08>
- 천주교 열사·활동가를 기억하는 스물세 번째 추모미사
- “이름 모를 정의의 열사와 활동가들도 함께 기억하자”
가톨릭프레스 2018-11-16 18:36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471>
- “하느님나라를 품어 살았던 표양이자 사도” - 천주교 열사, 활동가 합동 추모미사 봉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8-11-16 15:47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65>
- 조성만의 죽음, 평화의 주체를 호명한 선언 - 조성만 30주기 추모 심포지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8-09-10 18:24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7>
- 조성만 열사 통해 한반도 평화를 보다
- 8일, 통일열사 조성만 30주기 추모 심포지엄
- “교회는 그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가톨릭프레스 2018-09-10 12:31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288>
- 조성만 추모 30주기, 명동대성당서 봉헌
가톨릭평화신문 2018-06-10 발행 [1468호]
http://www.cpbcc.co.kr/CMS/newspaper/view_body.php?cid=723253&path=201806
- 운동권에 등장한 새로운 기류 NL
- [투사들의 이야기, 민청련의 역사 45회] 5월 투쟁에 충격을 던진 조성만 열사
오마이뉴스 2018-06-07 11:0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2647&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30년 만에 명동성당서 봉헌된 ‘조성만 요셉’ 추모미사
- “광주 민중항쟁을 넘어 통일을 염원했던 청년”
가톨릭프레스 2018-06-01 19:50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049>
- 30년 만에 명동성당에서 조성만 추모미사 봉헌
- ‘군사정권 반대, 한반도 통일’ 등 외치며 교육관에서 투신했던 청년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8-06-01 14:06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0>
- [인터뷰] 이원영 “조성만 열사 명동성당 첫 추모미사 중 눈물”
가톨릭평화방송 2018-06-01 09:46
http://www.cpbcc.co.kr/CMS/news/view_body.php?cid=722637&path=201806
- 통일열사 조성만 30주기 추모미사 열린다
한겨레 2018-05-30 11: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846885.html>
- 정동영, 조성만 열사 30주기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회적 약자 돌봐”
프레이크뉴스 2018-05-26 23:52 https://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580722

- 흰옷 입고 옥상으로 간 그, 몸 던지며 외친 한마디
 - [30년 전에 쓴 유서⑤] 통일 외친 청년 조성만의 죽음...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져
 오마이뉴스 2018-05-24 07: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3701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 적공
 - 경북일보31 2018-05-16 19:21 <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538>
- 봄이 온 한반도를 조성만 열사가 본다면 - ‘통일열사 조성만 30주기 추모사업위원회’ 발족해
- 가톨릭프레스 2018-05-16 19:22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5000>
- 북미 정상회담 30년 전 “미국 축출” 유서 던진 조성만 열사
 - 반미통일열사 조성만 열사 30주기에 부처
 통일뉴스 2018-05-15 15:05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805>
- ‘부활하는 내 한반도여, 조성만 열사여’ - 통일열사 조성만 요셉 기억하며 30주기 추모행사 열려
- 가톨릭프레스 2018-05-14 16:25 <http://catholicpress.kr/news/view.php?idx=4992>
- 한반도 평화, 그리고 조성만(요셉) - [특별기고 - 이원영]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8-05-10 16:25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84>
- 팔레스타인 목수의 아들 예수, 조성만 요셉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8-05-08 16:56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74>
- 열사, 한국 현대사를 읽는 또다른 열셋말
- 한겨레 2017-06-17 10:5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9172.html
- 자신이 오월 광주가 된 이들
-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7-05-23 16:10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55>
- 5·18 진상 규명 외치며 목숨 끊은 열사들
 - 기억해야 할 이름들
 - 박관현·표정두·조성만·박래전·김종태·홍기일·김의기·최덕수...
 한겨레21 2017-05-22 17:52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43577.html
- 文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화 열사 4인 다시금 주목
 -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 文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화 열사 4인
 - “오월의 아픔 세상에 알리려 희생”
 남도일보 2017-05-21 16:39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309>
-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대통령이 호명한 사람들은 누구?
- MBN뉴스 2017-05-19 영상뉴스 <https://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55549>
-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문 대통령 언급 민주열사 4인 누구
- 경향신문 2017-05-18 22:46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5182246005>

- 5월 열사 직접 호명…전국화, 보편적 가치로 확장 -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 분석해보니<3>
광주드림 2017-05-18 19:48 <http://www.gjdream.com/news/articleView.html?idxno=480271>
- “이런 세상도 오는구나” 문 대통령 거론 4인 유족들 ‘37년만의 희망가’
- 文 대통령 거론 4인 누구
국민일보 2017-05-18 18:2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750413&code=11131100&cp=du>
- 대통령이 목놓아 부른 4인의 5·18열사 이야기 - 5·18 민주화운동 37주년
한국일보 2017-05-18 17:5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181774402956>
- 문재인 대통령의 ‘초혼’ - 5·18기념사서 박관현·표정두·조성만·박래전 등 ‘민주열사’ 언급
한겨레 2017-05-18 16:3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95280.html>
-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文 대통령 언급한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열사들은?
국제신문 2017-05-18 16:21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70518,99002162102>
- ‘5·18 민주화운동’ 문재인 대통령이 호명한 ‘열사 4명’은 누구?
동아일보 2017-05-18 16:03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518/84427043/2>
- “세상이 좋아지긴 많이 좋아졌나 봐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7-05-18 15:53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38>
- “요것이 바로 진정한 기념식이여…”
- 5·18민주화운동 제37돌 기념식…참석자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문 대통령, 박관현·표정두·조성만·박래전 등 5·18 열사 직접 거명
한겨레 2017-05-18 13:20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795246.html>
- 5.18 열사 이름 외친 문 대통령… “큰 감동, 위로받았다”
- 문익환 목사 연설 오마주, “광주 정신으로 통합 이루자는 메시지”
오마이뉴스 2017-05-18 13:1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6652&CMPT_CD=P0001
-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 호명한 ‘광주 열사’ 4명 누구
한겨레 2017-05-18 12: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5240.html
-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 5·18 열사 하나하나 외친 文 대통령
헤럴드경제 2017-05-18 10:2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518000320>
- “박관현, 표정두, 조성만, 박래전”…대통령이 호명한 사람들은 누구?
MBN뉴스 2017-05-18 영상뉴스
<https://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55474>
- “조성만을 알고 삶의 밑바탕이 되었어요.” - 조성만 29주기 추모 미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7-05-16 11:16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24>

- 문정현 “분단은 독재의 발미, 용납할 수 없었다”
- [꿀잠] 백기완 소장-문정현 신부의 댓거리 ③ 남은 자
오마이뉴스 2016-07-06 05:2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662&CMPT_CD=P0001
- 28년 동안 조성만을 추모하는 사람들, 광화문에 모이다
- 28주기 추모 미사 열려, 1988년 ‘조국 통일’ 외치며 분신
굿모닝충청 2016-06-05 21:56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78>
- 28년 동안 조성만을 추모하는 사람들, 광화문에 모이다
- 28주기 추모 미사 열려, 1988년 ‘조국 통일’ 외치며 분신
오마이뉴스 2016-05-13 11:0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8944&CMPT_CD=P0001
- 조성만 28주기 추모 미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6-05-11 15:29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43>
- 조성만 열사 28주기 추모행사 10·15일 서울·광주서
2016-05-09 16:50 <https://www.hani.co.kr/arti/society/area/742991.html>
- 28년 전 “조국 통일”과 “민주화”를 요구했던 조성만(요셉)열사 10일 추모식
- 10일 오후 7시 30분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15일은 광주순례
수원시민신문 2016-05-03 17:12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61705
- “천주교 열사는 사회복음화의 모범” - 17년째 계속된 천주교 열사 추모미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5-05-27 16:10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71>
- 조성만 열사 27주기 추모제, 전주 해성고에서 열려
전북도민일보 2015-05-21 16:38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029>
- 김제출신 故 이세종·조성만 열사 추모비 건립
전북일보 2015-05-18 23:02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549078>
- [현장] ‘고귀한 희생 기억하겠습니다’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유영봉안소 개장
민중의 소리 2015-05-15 09:24 <http://www.vop.co.kr/A00000887474.html>
- 통일열사 조성만 26주기 추모제, 전주 해성고에서 열려
전북도민일보 2014-05-22 16:34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028>
- 조성만, 예수를 따랐던 참 신앙인을 기억하다
- 조성만 열사 25주기 추모 미사 봉헌해 ... 17일 광주 묘역 참배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3-05-16 11:03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23>
- 조성만을 기억하는 가톨릭 청년들, 15일 추모미사 및 평화단체 발족식
- 15일 저녁 홍대입구역 부근 가톨릭청년회관 5층 강당에서
수원시민신문 2013-05-13 17:15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27900
- 조성만 25주기 추모 미사, 15일에 봉헌 - 15일 오후 7시 30분,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 5층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3-05-07 17:27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53>

- 박준, “예수는 사랑이야, 노동은 희망이야” - [인터뷰] 기도하는 민중 가수 박준 토마스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3-02-28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9>
- 민중의 고난에 참여하는 가톨릭교회의 ‘사회참여’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12-08 11:26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97>
- “열사여, 이 땅을 축복하소서. 빛을 주소서”
- 5월 24일 오후 7시 30분, ‘천주교 열사 합동 추모 미사’ 봉헌
“공의회 50주년 맞아 열사 정신 기억하고 그 길 따르기 위해”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05-22 12:07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39>
- “성만, 나 언제라도 그대와 함께 하겠네” - 조성만 형제 24주기 맞아 추모미사 봉헌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05-16 14:24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01>
- 조성만 열사 24주기 추모미사 봉헌
- 5월 15일 오후 7시 명동 가톨릭회관 3층. 오는 20일에는 광주 망월동 순례 계획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2012-05-09 18:09 <http://www.catholi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58>
- 광주시, 5.18 옛 묘역에 영령봉안소 설치 추진
연합뉴스 2011-06-16 17:39 <https://www.yna.co.kr/view/AKR20110616161100054>
- “책을 읽었다 접었다 하며 서너시간 올렸지요”
- 요셉 조성만 평전 <사랑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열려
오마이뉴스 2011-05-20 21: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9445&CMPT_CD=P0001
- 23년 만에 명동으로 돌아오는 조성만을 아시나요
- 요셉 조성만 평전 <사랑 때문이다> 출판기념회 열린다
오마이뉴스 2011-05-17 11: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6778&CMPT_CD=P0001
- 23년 전, 안중근과 비교된 청년이 있었다 - [서평] <사랑 때문이다: 요셉 조성만 평전>을 읽고
오마이뉴스 2011-05-14 20:4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4964&CMPT_CD=P0001
- ‘신부님’ 꿈꾸던 청년, 그렇게 투신하다
- [서평] ‘길위의 신부’ 문정현의 스승, 요셉 조성만 평전 <사랑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2011-05-14 20:4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5353&CMPT_CD=P0001
- 조‘성만 사랑’에서 19일, 출판기념회 연다
- 조성만 열사 23주기 추모행사와 ‘사랑때문이다’ 출판기념회 함께
수원시민신문 2011-05-12 16:24 http://www.urisuwon.com/sub_read.html?uid=12393
- 1988년 5월 15일 명동성당에선 무슨 일이... - [서평] 요셉 조성만 평전 <사랑 때문이다>
오마이뉴스 2011-05-09 10:1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63350&CMPT_CD=P0001

- “그들의 청년정신 잊지 말아요” - 조성만·강경대 열사 평전 출간
한겨레 2011-05-04 19:40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476368.html>
- [길을찾아서] 벗을 수 없는 소명처럼 규현신부 다시 평양으로 / 문정현
한겨레 2010-07-20 20:12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431285.html>
- [길을찾아서] 규현 신부 방북...평양과 임진각서 동시 미사 / 문정현
한겨레 2010-07-18 21:44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30927.html
- 조성만 열사 20주기 추모식
한겨레 2008-05-13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7375.html
- 서울대, 민주화운동 희생자 6명 명예졸업장
한국일보 2008-02-25 18:15 <https://news.v.daum.net/v/20080225181506437?f=o>
- <게시판> 2006 천주교열사 합동추모미사
연합뉴스 2006-05-26 09:07 <https://news.v.daum.net/v/20060526090714538?f=o>
- “벗이여 해방이 온다” 이성지 노래모음집 발매
연합뉴스 2005-05-26 10:47 <https://entertain.v.daum.net/v/20050526104705864?f=o>
- ‘통일열사’ 조성만 추모비 제막식
연합뉴스 1999-08-15 16:17 <https://news.v.daum.net/v/19990815161700719?f=o>
- ‘통일열사’ 조성만추모비 건립 논란
연합뉴스 1999-08-10 08:17 <https://news.v.daum.net/v/19990810081700944?f=o>
- 조성만열사 추모비 모교에 건립
연합뉴스 1999-03-23 09:21 <https://news.v.daum.net/v/19990323092100321?f=o>
-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청원
연합뉴스 1998-09-14 15:42 <https://news.v.daum.net/v/19980914154200393?f=o>
- 크리스찬 청년연합, 故조성만 4주기 추모제
연합뉴스 1992-05-15 20:30 <https://news.v.daum.net/v/19920515203000529?f=o>
- 5·18추모미사 잇따라 개최
연합뉴스 1992-05-11 15:19 <https://news.v.daum.net/v/19920511151900251?f=o>
- 국민연합전북(全北)본부 민주화투쟁일정 밝혀
연합뉴스 1991-05-13 11:18 <https://news.v.daum.net/v/19910513111800721?f=o>

<동영상 리스트>

- 고 조성만 열사 민주국민장 (1:39:26)
<https://www.youtube.com/watch?v=8f-CXFsMkhM>
- 광주항쟁 알린 민주열사들 “국민훈장” (2:24) /
뉴스데스크 2021.6.10. 광주MBC / 2021.06.10. <https://www.youtube.com/watch?v=oFx-trIOc>

- 그대 진달래 되누나 (이창학-이성지) (3:34)
<https://www.youtube.com/watch?v=JjFv8pVpdlk>
- [뉴스데스크] 문재인 “광주 위해 싸운 열사들 기리겠다” (2:24)
 광주MBC뉴스 / 2017.5.18.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4wSFs-iWGYA>
- [뉴스데스크] ‘전국의 5.18들’ 기획전 (2:28)
 광주MBC뉴스 / 2019.5.2. <https://www.youtube.com/watch?v=st8nA0cjZ4A>
- 문정현신부님의 조성만 열사에 대한 고백, 그리움의 말씀과 노래! (6:06)
 2019.5.15. 강정 평화인간띠 문화제 중 / 방은미 촬영 <https://www.youtube.com/watch?v=Hiw7won9Hdk>
- 문정현Fr, 88년5/15! 요셉조성만열사 그리워! (3:38)
 - 강정 길거리 미사 중 2018.5.14 / 2015.5.15. <https://www.youtube.com/watch?v=8Uc-rFLkMOE>
- 문정현Fr 조성만열사 해성고 나의 제자! 하지만 그는 나의 스승! (4:36)
 - 강정 길거리 미사 중
<https://www.youtube.com/watch?v=whq2hO2YCXs>
- 조성만 30주기 공연 ‘사랑 때문이다’ (9:58)
 사진동영상_20181215 / 2018.12.15. / 이연 <https://www.youtube.com/watch?v=EA1VdEEtTsM>
- 유경춘 주교, 조성만 추모미사 강론 (10:32) /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K1041Nixoxl&t=230s>
- 인물 현대사 문정현편 조성만 열사 이야기 (2:13) / 2020.05.07.
<https://www.youtube.com/watch?v=QUaqOwByY-c>
- 전주 조성만 열사 생가방문 (22:38) / 2018.11.27
https://www.youtube.com/watch?v=h9OQ10F_aQE
- 정윤경_조성만 (꽃다지) (4:48) / 2012.12.13.
 ① https://www.youtube.com/watch?v=UBk7RBQ_ZN4
 ② <https://www.youtube.com/watch?v=F0eEIQQOuOuM>
- 조성만 아버님 30주기 추모미사 말씀 (6:48) /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td5O11xWXno&t=11s>
- 조성만열사 (1:46) / 2009.06.19.
<https://www.youtube.com/watch?v=hcMy7haT42o>
- 조성만열사 추모영상 (6:18) / 2019.09.23.
<https://www.youtube.com/watch?v=xjQngT5Yf8Q>
- 조성만열사_추모곡 통일 그날로 다시 살아올 그대여!
 - 제주 강정 박수환 노래, 방은미 촬영 (2:21) / 2018.5.15
<https://www.youtube.com/watch?v=6vscRmLttMY0>

- 조성만열사_유서_한반도 통일...
 - 제주 강정 이상 낭독, 방은미 촬영 / 강정 평화인간띠 문화제 중 (5:44) / 2018.5.15.
 - ① <https://www.youtube.com/watch?v=6TQ7uozUoEw>
 - ② <https://www.youtube.com/watch?v=KNqRpcquijY>
 - 제주 강정 방은미 낭독(2019.5.15.)
- 조성만열사 척박한 땅, 제주 강정... (16:41) / 2018.05.15.
 - <https://www.youtube.com/watch?v=PEACAOI9QhA>
- 조성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춤과 노래 난장 판굿 (2:02) / 2018.12.15. / 김찬호
 - <https://www.youtube.com/watch?v=UntUq5XcRzM>
- 조성만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춤과 노래 중에서(김찬호) (4:57) / 2018.12.17.
 - <https://www.youtube.com/watch?v=RjZPFPSFZ6w>
- 조성만 추모공연 - 추모공연 준비위원장 (1:24:20)
 - <https://www.youtube.com/watch?v=QBRxM3ejflk>
- 조성만 추모 관련 영상(30주년 추모미사) (10:31) / 2018.05.
 - https://www.youtube.com/watch?v=K1041Nixoxl&list=PLrO9Rv-o6MeBZyZHfZ3Tb4ZcUjPy8q_jN
- 통일열사 조성만 국민장례기 (50:19) / 가문협 1988년 제작(VHS)
 - <https://www.youtube.com/watch?v=IBFYiY1nEkc>
 - ① <https://www.youtube.com/watch?v=IBFYiY1nEkc>
 - ② <https://www.youtube.com/watch?v=V5d7967B7Hs>
- 한반도 평화미사 & 조성만 열사 추모미사(5) (1:01) / 2018.12.31.
 - <https://www.youtube.com/watch?v=WUfqAwFslT0>
- [JTV 8뉴스] '민주화 유공'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받아 (0:28) / 2021.6.11. 방송
 - <https://www.youtube.com/watch?v=2EUdTr2sXQQ>
- Tape 3 이부영 조성만열사 장례준비위원장(조성만열사 자료 중) (22:47) / 육성
 - <https://www.youtube.com/watch?v=Uo7NW5oDnck>
- 조성만 열사 5주기 제막식 (1:21:59)
 - 서울대 열린마당 / 추모비 건립위원회 / 김학성(서울대 화학과 박사과정) 촬영 / 1993년 5월 15일
- [5MBC 뉴스] 6·10항쟁 34주년... 고 조성만 열사 국민훈장 추서 (0:36)
 - 전주 MBC 2021.06.11.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urEzGm1q5L4>
- 조성만열사 1주기 추모제 (28:44) / 89 05 15
 - <https://www.youtube.com/watch?v=BYUs3RX9YU8>

● 조성만기념사업회 창립선언문

보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통일열사 ‘작은 예수’ 조성만의 숭고한 삶과 그의 고귀한 희생과 드높은 생각과 한없는 사랑을 기리고 드높이하며, 그의 생각과 사랑을 오늘-여기에 되살리고, 내일-저기로 잇고 받들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는 물론 인류와 세계의 공존과 공영을 도모코자 조성만기념사업회 창립을 선언한다.

떠올려보라! 지금으로부터 33년 전, 세계인의 축제 서울올림픽을 평화의 경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외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명당성당 교육관 건물에서 그 한 몸을 조국의 역사 속에 내던졌던 1988년 5월 15일의 ‘작은 예수’ 조성만을! 그날을 어찌 잊으리오. 그 의거를 망각할 자, 과연 누구이런가? 허나, 세상만사를 삼켜버리는 세월 앞에서는 ‘작은 예수’ 조성만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낮은 바래지 않았으나, 그에 대한 기억은 너무나도 빨리 시간의 더께 아래로 묻혀버리고 있기에.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가까이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지키고 되새기며, 멀리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성만에 대한 기억을 심어주고 되살려, 그에 대한 추모를 한 개인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 기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예수’ 조성만기념사업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우뚝 서 있음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린다.

살펴보라! 한때, 우리는 얼마나 기대했던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서로 손을 잡았을 때,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소나무를 심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로 가는 기차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금방이라도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환호하고 기뻐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라! 냉정하고 냉혹했던 현실은 우리가 얼마나 낭만적이고 이상적이었는지를 보여주었을 따름이었다.

들어보라! ‘작은 예수’ 조성만의 절규를. “우리는 한국전쟁 이후 서로 철천지원수가 되어 살아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같은 형제라는 낱말을 잇고 살아왔습니다. 통일이 국시가 아니라 반공이 국시인 현실 속에서 초등학교 음악책에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가 없어지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으며, 통일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가 채워지는 현실을 뜬눈으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따져보라! 33년 전 ‘작은 예수’ 조성만이 우리에게 던진 것이 틀린 말인지. 제도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엇 하나 온전히 바뀐 것이 없지 않는가? ‘작은 예수’ 조성만기념사업회

의 설립 근거와 존립 근거의 정당성은 여기에 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그 시효를 다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와 함께 살아 있다. 예수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 있듯이. 허나, 생각해 보라! 현실은 얼마나 냉혹한지를. 낭만적인 환상에서 벗어날 때다. 미-중-러-일 패권 열강들과의 엄혹한 경쟁과 협력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조성만을 저 먼 곳으로 보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를 다시 살려내는 몸체로 ‘작은 예수’ 조성만기념사업회를 우뚝 세우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찾아보라! ‘작은 예수’ 조성만기념사업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통일열사 조성만을 우리 역사의 공동 기억으로 만들자. 그가 남긴 말의 의미와 취지를 되새기고 되살려, 이를 바탕으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그의 고귀한 유혼을 기리고, 그의 생각을 우리 역사의 공동 기억에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울러 그가 그토록 깨트리려고 했던, 한반도를 짓누르고 있는 패권 열강의 지배 논리의 질곡을 무너뜨리는 논리와 이론을 만들어 계승하고 발전시키자. 지난날 우리가 목도한 좌절과 아픔을 넘어서서 냉철한 이성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역학 구조와 지정학적인 난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담론의 공간을 만들자.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의 화해와 소통을 가로막는 족쇄를 제거하는 철거 작업을 도모하자. 또한 통일과 평화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추동하자. 통일이 이제는 생존이고 평화가 이제는 경제라는 생각의 토양을 다지고 북돋아주는 일이 ‘작은 예수’ 조성만을 되살리는 일임을 명심하자!

자, 이제는 널리 알리자! 여기 ‘작은 예수’ 조성만이 살아 돌아왔음을! 작지만, 단단한 몸체의 ‘작은 예수’ 조성만기념사업회가 태어났음을! 이제는 선언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성만 입을, 내가 또 하나의 조성만 입을. 그야말로 “사랑 때문이다.”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 몸으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 마음으로, 그 어떤 수단이든 방법이든! 참여와 동참을 원하는 자는 모두 그 각자의 방식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자.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통일열사 ‘작은 예수’ 조성만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매년 추모미사를 통해 ‘작은 예수’ 통일열사 조성만을 추모해주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명동성당청년단체연합회, 해성고등학교 총동문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와 그를 기억하고 사랑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물론 마음으로도 동참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평화가 한반도와 세계에 뿌리내리길 염원하며(Pax omnibuscum) ‘작은 예수’ 조성만기념사업회 창립을 선언한다.

2021년 11월 20일
조성만기념사업회 발기인 일동

● 함께하는 사람들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권철민 길성환 김광훈 김남이 김덕진 김병삼 김선광 김선실 김소형 김소형

_90명, 16,720,000원 (2022.04. 기준)

회비를 내주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업회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

조성만기념사업회 정관

(2021년 11월 20일)

제2장 회원

제5조 (종류)

1. 정회원 : 본회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으로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입회를 승인받은 자

제6조 (입회 및 승인)

① 정회원은 본회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사회 의결로 입회를 승인받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제7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사선임 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지닌다.
3. 명예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4. 후원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

②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본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2. 입회 및 회비규정에 따라 회비납부

본회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가입신청서 또는 아래 QR코드를 접속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월회비 또는 연회비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 |
|-----|--|
| 월회비 | <input type="checkbox"/> 5천원 <input type="checkbox"/>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이상 |
| 연회비 |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30만원 <input type="checkbox"/> 5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100만원 이상 |

- 사업회는 여러분들이 내주시는 회비로 운영됩니다.
- 월 회비는 자동계좌이체를 해주실 것을 청합니다.
- 연회비는 “존함+연회비”로 표기해 주십시오.



전화 063-231-0515 | 이메일 josm880515@gmail.com

후원계좌 : 농협 301-0294-5816-11 조성만기념사업회